

“사진과 그림은 시의 영감 찾아가는 과정”

‘시인의 사진, 시인의 그림’전 갖는 나희덕 시인

5월 14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
책상·소품 함께 사진·유화 40여점 전시
2012년부터 그림 공부...황재형에 교육
시인의 낡은 책상에 앉아 작품 필사도

▶영국 베틀리마켓에서 구입한 책상과 수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한 나희덕 시인.



지난 2012년 영국에서 연구년을 보낸 나희덕(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시인은 좋아하는 미술관을 찾아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흥대 미대 출신 장미선 선생과 친구가 됐고 그녀의 집에서 음식을 나누고, 그녀 곁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여중 시절, 미술 선생님께서 미술을 가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던 그녀는 미술에 대한 갈망을 늘 갖고 있었다. 2014년 황재형 작가가 광주 양림미술관에서 진행한 미술 실기 강의를 듣기도 했다.

시인은 여행을 떠날 땐 늘 카메라를 챙긴다. ‘한 걸음씩 걸어서 거기 도착하려네’ 등의 산문집에 실린 시인의 사진은 ‘글’과는 또 다른 감성을 전해준다.

나희덕 시인이 5월 14일까지 광주시 동구 소태동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아티스트의 창고 III-시인의 사진, 시인의 그림 나희덕’전을 연다. 시인은 “커다랗게 인화된 사진을 보고 꼭 습작노트가 처음 활자화 될 때의 기분이 들어 떨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갤러리에서 만난 50여점의 작품은 사진과 그림으로 써내려간 또 다른 시(詩)다. 갤러리에 영국 시절 시인이 베틀리마켓에서 구입해 사용하던 책상이 놓여있다. 소설가 카프카와 돈키호테 조각상이 놓인 책상에 앉아 관람객은 잠시 쉬어가며 시인의 시를 읽고 원고지에 시를 필사해 볼 수도 있다. 옆 테이블엔 이야기가 담긴 다양한 수집품들이 놓였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거절했어요.

전문적으로 작업하는 이들에게 제 작품은 어린애 수준이죠. 한데 작가의 창고전이라는 타이틀에 부담을 좀 덜었어요. 창고에 넣어진 무언가를 꺼내듯, 완성품을 보여 주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완성시켜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해 용기를 냈어요. 미술과 음악은 제 시의 영감의 원천이에요. ‘언어’로 이야기하는 저의 작업 이전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글쓰는 것은 책임감, 완성도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틀을 깨지 못하는 거죠. 반면 사진은 순수하게 몰입하니 해방감도 느껴요. 시는 의도적 작업인데 반해 사진은 유희적 재미가 있어요.”

풍경이 주로 담긴 시인의 사진은 뚜렷한 게 별로 없다. 흔들리고, 흐릿하고, 그림자에 주목한 모습들이 많다. 자신만의 독특

한 시각으로 ‘울리시즈’의 시선을 따라가며 만난 아일랜드 풍경, 스트레퍼드 어폰 에이번 셰익스피어 생가의 모습, 나오시마 낚은 건물 사이에서 발견한 낙엽 등...

“인화를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새삼 알게 됐어요. 바람을 좋아하고 빛과 어둠이 만나는 지점을 많이 찍었거든요. 실제보다는 그림자와 그 반영을 좋아해요. 슬로베니아에 갔다 택시를 대절해 구경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데 주로 허물어지고 노출된 벽의 표정과 부서진 문을 찍으니 나중에는 운전사가 알아서 그런 장소로 데려다 주더군요.(웃음). 어떤 모습에서 시적인 느낌이 들었을 때 그 이미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다시 보더라도 시적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어요.”

그녀는 ‘그림’ 보는 걸 좋아한다. 시선집

‘그녀에게’는 여성 작가들의 시와 그림을 직접 골라 엮은 책이다.

“그림을 사실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 시를 쓰기도 하지요. 시각적 요소를 제 방식으로 풀어내는 거죠.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은 윌터 크레이의 ‘베틀리마켓의 말’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두고두고 보면서 대화할 게 있다고 생각되면 그림을 사기도 해요. 아트페어에서 ‘아주 좁은 계단’이라는 형기리 작가의 작품을 구입해 걸어두고 ‘아주 좁은 계단’을 썼고 장민숙 작가의 작품에선 ‘창문성’이라는 시가 태어났어요.”

이번에 전시된 회화 작품은 영국에서 그린 사계절 풍경화와 황 작가 수업을 들으며 작업한 추상화들이다. 전시장에서는 수집품도 만날 수 있다. 우울할 때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길에서 만난 코스타리카 할머니가 3달 동안 작업한 바느질 작품과 좋아하는 필기구, 조각상 등이다.

“어떤 사람들은 ‘잠동사나’라고 하는데 오래된 것, 찌그러지고 부서진 것, 사람의 손때 묻은 그릇, 바느질한 천 조각이 그런 게 좋아요. 지금까지 유럽을 주로 다녔는데 인간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는 피로감 같은 게 느껴져서인지 요즘엔 사람이 없는 곳, 시원의 풍경 등에 관심이 가요.”

나시인은 올해 8번째 시집을 출간할 예정이며 10년 쯤 후에는 시와 자신의 추상 유화 작품을 묶어 시집을 내고 전시도 열고 싶다고 했다. 일요일·공휴일 휴관. 문의 010-6791-805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해 나희덕 시인이 달리는 기차 안에서 찍은 시베리아 자작나무 풍경.

명문가 자녀교육 전문가 최효찬씨 10년 편지글 모아 가족 에세이 펴내

영화 ‘매트릭스’에 이런 말이 나온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과는 다르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저마다의 선택으로 자신만의 인생길을 간다. 그 길 위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은 자신에게만큼 특별한 수밖에 없다.

지나온 길에 대한 선택과 이 과정에서 느꼈던 단상을 많은 이들에게 편지로 띄워 보냈던 이가 있다. 작가이자 명문가 자녀교육 전문가인 최효찬은 지난 2006년부터 ‘자녀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면서 10여 년에 걸쳐 많은 이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최 작가는 최근 그 글 가운데 일부를 담아 ‘가족 에세이’를 펴냈다.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벤틀프레스)에는 유년의 기억과 추억, 자녀를 갖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르기 위한 고민과 선택, 감동과 반성의 시간 등이 농축돼 있다. 특히 17년간 중앙의 일간지에서 기자생활을 했던 필력은 정갈하면서도 따스한 감성을 선사한다.

“마흔을 넘기면서 언제부터인가 예고 없이 불쑥불쑥 아버지가 생각나곤 합니다. 아침 산책길에서 순간순간 생긴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연세가 같은 분을 보면, ‘아버지도 저런 모습일 테지...’하고 상심합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몰래 코끝이 정해 옵니다. 아버지는 이른 아침에 농사일을 나설 때 풋고추를 넣은 라면을 즐겨 드셨습니디. 어린시절 잠결에 이 광경을 보곤 했습니다. 제가 풋고추를 곁들인 라면을 즐겨 먹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책은 아버지 대한 추억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내 병은 내가 안다. 그 돈이면 자식들 공부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며 자녀등록금과 자신의 목숨을 맞바꾸었던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진정한 감동으로 밀려온다.



저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 대한 단상도 펼쳐낸다. 지나친 잔소리와 간섭으로 상처받은 아들에게 미안해하며 반성하는 글들이 곳곳에 등장한다.

저자는 “아들이 고3이 될 무렵 과연 나는 아비노릇을 제대로 해온 걸까, 자기 평가를 해보니 B학점도 안 되는 것 같았다”며 “그러나 아들과 함께한 ‘기억의 유산’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생각한다. 방학 때마다 아들과 함께한 도보여행이 아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라고 밝혔다.

한편 책에는 맛갈스러운 글과 함께 화가인 허진 전남대 교수의 그림이 담겨 있어 보는 맛도 쏠쏠하다. 글과 그림은 한 편의 시이거나 한 편의 교향곡처럼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어 색다른 울림을 준다.

허진 화가는 “구상하고 작업을 하는데 1년 여의 시간이 필요했다”며 “김 작가의 글을 읽으며 나의 지나온 삶과 자녀에 대한 교육 등을 되돌아볼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피아니스트 서현일 연주회 22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서현일씨는 지난 2014년부터 모두 32곡에 달하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진행하고 있다. 총 8차례 중 지금까지 7차례 연주회를 마친 서 씨가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베토벤의 ‘3대 피아노 소나타’를 들려주는 특별한 연주회를 준비했다. 2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전남대학교병원 클래식 동호회 후원으로 마련한 이번 콘서트에서는 ‘열정’, ‘비창’, ‘월광’ 등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14번 ‘월광’은 베토벤이 호수에 비친 달빛을 연상시킨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8번 ‘비창’은 판송으로도 만들어져 많은 사랑을 받은 감미로운 2악장이 인상적인 작품이며 23번 ‘열정’은 화려한 기교가 유감없이 발휘되는 작품이다.

호남예술제 출신으로 광주예고 재학중 독일로 유학을 떠난 서씨는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 수학했으며 귀국 후 서울시립교향악단 현대음악 시리즈인 ‘아르스 노바’ 객원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다. 티켓 가격 2만원. 문의 010-8717-4700 /전은재기자 eje6621@kwangju.co.kr

문화전당, CJ ONE과 공동 문화 마케팅

회원 전시할인권 제공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 이하 ACC)은 고객 서비스를 다각화 하기 위해 CJ ONE과 함께 문화마케팅을 진행한다. 오는25일까지 CJ ONE 회원은 대상으로 ACC 전시 프로그램 통합관련권 1+1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ACC 전시 1+1 이벤트’는 CJ ONE 앱에서 제공하는 전시할인권을 ACC 매표소에서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 최대 4매까지 할인 가능하며 1인

입장 시에도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ACC에서는 박찬욱·박찬경 형제의 ‘파랑새 2010-2018’전과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세계 정치사에 대한 발언을 모은 회화전 ‘베트남에서 베를린까지’ 등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ACC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및 기업들과 문화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의 ACC소식 게시판 및 CJ ONE 홈페이지(www.cjon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아·내일 위한 명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